

3월 22일(월) / 민 1-3

▶ **내용요약** :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하는 장면과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지 2년째가 되는 2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도록 하셨다. 2장에는 이스라엘의 진 편성과 행군의 순서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는데, 동쪽에는 잇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남쪽에는 갓, 르우벤, 시므온 지파가,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다. 한편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는데, 특별히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아들이자 하나님의 소유로 여겨졌다.

▶ **질문** : 이스라엘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쳤는가? (2장)
▶ **생각하기** :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회막을 중심으로 각자의 진을 편성하였다. 한 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던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 한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자.

3월 25일(목) / 민 10-12

▶ **내용요약** :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나팔을 만드실게 하시고 그것으로 소집과 출발을 알리게 하셨다. 이후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행진을 시작하였다. 한편 11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의 심판을 당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불사름'이라는 뜻이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칠십 명의 장로들을 뽑으셔서 모세의 일을 돕게 하셨다. 또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동시에 큰 재앙으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트 핫다아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다.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특히 미리암은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는데, 모세의 기도도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다.

▶ **질문** :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장로를 뽑게 하셨는가? (11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호소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분은 우리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신다.

3월 28일(일) / 신 16-18

▶ **내용요약** :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는 세 가지 절기, 즉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관하여 다시 설명하고 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다. 이는 무교절과 이어져 8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성회로 모이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칠칠절(맥추절)은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이다. 마지막 초막절(수장절)은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다. 특별히 칠칠절과 초

3월 23일(화) / 민 4-6

▶ **내용요약** :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각각 조사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회막 봉사를 위한 임무들을 부여하셨다.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율법과 규칙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욱신의 질병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격리하는 문제, 죄에 대한 배상 문제, 그리고 배우자의 간통 등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자세한 지침들을 주셨다. 한편 6장에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먹는 것 뿐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까지도 일반인들과 구별되어야만 했다.

▶ **질문** :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6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은 일반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헌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이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3월 26일(금) / 민 13-15

▶ **내용요약** : 민수기 13장에는 열 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사십 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함으로써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를 직접 목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견고한 성읍과 강한 군대가 있는 곳이기도 했다. 이에 열 두 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결국 14장에서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또한 애굽에서 나온 이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십 세 이상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뉘우치며 점령을 시도하였지만,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 한편 15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심판과 옷단 귀에 술을 달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 **질문** : 열 두 명의 정탐꾼 중 악평을 하지 않은 두 사람은? (13-14장)
▶ **생각하기** :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막절에는 노비와 나그네 및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참여하며 즐거워하게 하셨다. 한편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처벌법, 택하신 곳에서의 재판 규정, 왕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 또한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레위 지파는 그 어떤 분깃이나 기업을 얻지 못했으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살아야 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3월 24일(수) / 민 7-9

▶ **내용요약** : 민수기 7장에서 모세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감독된 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하루에 한 사람씩 가져와 제단 앞에 드렸다. 8장에는 등잔을 차려 놓는 방식과 등잔대의 제작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모든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 후에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겠다고 하셨다. 9장에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만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진을 치고 진영 안에 머물렀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것이다.

▶ **질문** :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이들은 누구인가? (8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셨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자.

3월 27일(토) / 신 1-3

▶ **내용요약** :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교훈 설교이다. 1장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령을 세운 것, 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나 그들의 악평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사건들을 들려주었다. 또한 2장에서 모세는 요단 동편, 즉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후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또한 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바산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하였다. 한편 모세는 자신도 약속에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 **질문** : 어떤 지파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였는가? (3장)
▶ **생각하기**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역사를 거울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으라.

▶ **질문** : 출애굽을 기념하며 무교병을 먹었던 절기는? (16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